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ne 2025 Issue | Vol. 39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이스라엘-이란 갈등의 최악의 파급 효과에 대비해야 — 의원
— page 1-2
-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망 — page 2-3
- 경상수지 대폭 적자로 국제수지(BOP) 적자 발생 — page 3-4
- 필리핀,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51위로 상승 — page 4-5
- 유니캐피탈, 2분기 경제 성장 가속화 전망 — page 5-6
- 교통부, 2028년까지 공항 10곳 추가 민영화 추진 — page 6-7
- 도소매업 부문, 2034년까지 가치 15조 페소로 3배 성장 전망 — page 7

필리핀, 이스라엘-이란 갈등의 최악의 파급 효과에 대비해야 — 의원

June 16, 2025 | Jovee Marie N. dela Cruz | BusinessMirror

한 경제학자 출신 국회의원은 일요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전 세계 경제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최악의 파급 효과에 대비해 필리핀의 경제적 대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갈등이 필리핀 경제의 핵심 요소인 유가, 환율, 노동시장, 수입 비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sraeli soldiers search through the rubble of residential buildings destroyed by an Iranian missile strike in Bat Yam, central Israel, on Sunday, June 15, 2025. (AP Photo/Baz Ratner)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호세 클레멘테 “조이” 살세다(Jose Clemente “Joey” Sarte Salceda) 의원은 2025년 4월의 군사 행동이 이전 해들보다 더 직접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양국이 역사적으로는 지속적인 충돌로의 확산을 피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리핀이 이러한 파급

효과에 대비해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세다 의원은 “필리핀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외교적 정세 편향이 아니라 경제적 대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갈등은 유가, 환율 변동, 노동시장 혼란, 수입 비용 증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각 정부 기관이 2026년도 예산안의 1단계 및 2단계 제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테랑 의원인 살세다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혼란도 필리핀의 원유 수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이 하루 약 47만 1,400배럴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하루 470만 달러, 연간으로는 환율 1달러당 55페소 기준으로 약 949억 페소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수치는 연료 보조금, 교통, 농업,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각 정부 기관의 예산 가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세다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도 주목했다.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페소화는 미 달러당 56.60페소에서 56.28페소로 소폭 상승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방코 센트랄(BSP)은 총국제준비금이 1,055억 달러로, 약 7.3개월치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살세다 의원은 “이는 강한 재정적 위치를 의미하지만, 외부 변수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 요소

살세다 의원은 전 세계에 216만 명이 넘는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 중 약 3분의 1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갈등이 급격히 고조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송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0년 위기 당시 고용노동부(DOLE)가 편성했던 6억 페소 규모의 송환 및 복지 기금을 실질적인 사례로 들며,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 중인 해외근로자부(DMW)와 외교부(DFA)가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세다 의원은 필리핀 농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도 경고했다. 그는 약 66%의 비료 수입이 질소 계열이며, 대부분이 카타르 등과 같은 국가에서 수입한 요소(urea)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걸프 해역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내 비료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2]

필리핀, 이스라엘-이란 갈등의 최악의 파급 효과에 대비해야 — 의원

[Cont. from page 1]

그는 “농업부, 식물산업국, 국가식량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물류 비상 계획과 비축 물량 확보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살세다 의원은 또한 걸프 해역이 글로벌 보험사들에 의해 전쟁위험구역(war risk zone)으로 지정될 경우 해상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필리핀 선적이 직접 걸프 해역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석유 및 식품 화물의 운임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사항

살세다 의원은 지역 불안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여섯 가지 예산 관련 조치를 제시했다.

그는 교통부와 같은 기관들이 202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타위드 파사다(Pantawid Pasada)**와 같은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 50억 페소의 예산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부는 민간 수입업자들이 가격 급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계약 체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세다 의원은 농업부가 비료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근로자부(DMW)와 외교부(DFA)는 송환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 6억 페소의 대기 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사산업청(MARINA)과 통상산업부(DTI)는 전 세계 해운 보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지원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유가 시나리오를 거시경제 계획 및 사회보호 예산에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살세다 의원은 필리핀이 세계적인 갈등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 “재정 기조(fiscal posture)는 통제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국내 안정을 유지하며, 필리핀 가계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Image credits: [AP/Baz Ratner](#)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16/phl-must-be-ready-for-worst-spillover-effect-of-israel-iran-conflict-lawmaker/>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망

June 16,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ASIANTERMINALS.COM.PH

전 재무장관은 미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르게리토 B. 테베스(Margarito B. Teves) 전 장관은 필리핀이 17%의 상호 관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열린 한 포럼에서 “필리핀은 인도,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을 심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은 아세안 내의 강력한 지역 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무역 및 규제 장벽을 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업계 단체들은 현재 체결된 FTA조차 활용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이는 테베스 전 장관도 우려를 함께하는 부분이다.

그는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의 2022년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2019년 기준 필리핀 수출업자 중 FTA를 활용한 비율은 단 8.3%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수입업자의 활용률은 54.8%였다고 지적했다. [Cont. page 3]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망

[Cont. from page 2]

그는 “이러한 수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보 순회 설명회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중소기업(MSMEs)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들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FTA 활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리핀이 여전히 다른 국가 또는 지역 블록과의 FTA 협상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의 선택지를 더욱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FTA 체결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얹혀 있기 때문에 당사국 간 수년에 걸친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찍 시작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지속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 외에도 그는 기업 환경 개선, 비용 절감, 신중한 재정 관리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의 관세 전쟁은 우리가 재정과 경제의 다른 주요 부문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과도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러한 조건들을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다면 필리핀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6/16/679274/more-ftas-seen-as-counter-to-trump-uncertainty/>

경상수지 대폭 적자로 국제수지(BOP) 적자 발생

June 16,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필리핀의 국제수지(BOP)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의해 적자로 전환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국제수지 적자는 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3,800만 달러의 흑자에서 큰 폭으로 전환된 것이다.

BSP는 “이번 적자는 주로 상품, 서비스,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의 소득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수지 항목의 적자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SP는 2025년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42억 달러로, 2024년 1분기의 21억 달러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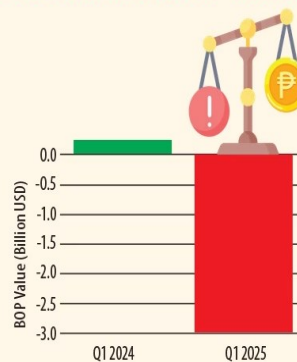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3.7%**로, 작년 동기 1.9%에서 상승했다.

BSP는 “이번 적자 확대는 수입 지출이 수출 수익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품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송 서비스 수입 감소와 해외여행 지출 증가로 인해 서비스 무역 순수입이 줄어든 것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해외 필리핀 노동자(OF)의 송금 증가가 그 영향을 일부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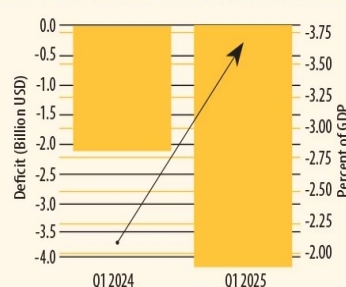
하지만 BSP는 이번 경상수지 적자가 금융계정의 자금 유입으로 일부 상쇄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계정은 일반적으로 장기 성격의 직접 투자, 주식·채권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기타 형태의 투자로 구성된다. [Cont. page 4]

PHL BALANCE OF PAYMENTS SWINGS TO DEFICIT IN Q1 2025



BOP OVERVIEW

■ Q1 2025: -\$3.0 billion deficit
 ■ Q1 2024: +\$238 million surplus
 Reason: Widening current account deficit



CURRENT ACCOUNT DEFICIT

■ Q1 2025: -\$4.2 billion
 ■ Q1 2024: -\$2.1 billion
 ■ % of GDP:
 → Q1 2025: 3.7%
 → Q1 2024: 1.9%



경상수지 대폭 적자로 국제수지(BOP) 적자 발생

[Cont. from page 3]

BSP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금융계정 순유입액은 67억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의 46억 달러보다 43.2% 증가했다.

BSP는 “이는 직접투자 및 기타 투자 부문의 순유입 증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투자 부문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에 따른 결과” 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자본계정은 2,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24년 동기의 1,700만 달러보다 35.9% 증가했다.

BSP는 이 흑자가 비생산·비금융 자산의 총 처분액 400만 달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분기의 총 취득액 1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필리핀의 외환보유고(GIR)는 1,067억 달러로, 2024년 3월 말의 1,041억 달러보다 증가했다. BSP는 GIR이 주로 외화표시 증권, 금, 외환 등으로 구성된 중앙은행의 외환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1분기 페소-달러 평균 환율은 1달러당 57.97페소로, 2024년 4분기 평균 58.15페소 대비 0.3% 절상되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24년 1분기의 평균 55.96페소에서 3.5% 절하되었다.

BSP는 “주요 교역 상대국 및 선진국·개도국 통화 바스켓 대비 실질 실효환율(REER) 지수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외부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고 밝혔다.

한편, ANZ 리서치(ANZ Research)는 최근 발표에서, 페소가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 특히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10/overvalued-phl-peso-is-hurting-economy/>)

ANZ는 페소의 과대평가가 “수년간 필리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지속적인 문제” 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통화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널리 인용되는 실질 실효환율(REER) 등 전통적인 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할 때, 2019년 이후 페소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16/big-current-account-gap-puts-bop-in-deficit/>

필리핀,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51위로 상승

June 17, 2025 | Alden M. Monzon | Philippine Daily Inquirer



The Philippines was deemed more competitive in 2025 compared to 2024, with its ranking going up a notch in the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Photo by Ted ALJIBE / AFP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의 2025년 세계 경쟁력 순위가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하며 69개 경제체 중 51위를 기록했다.

이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간한 2025년 세계 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5)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중 필리핀은 13위에 머물러, 이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IMD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포함된 5개국 중 필리핀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위 3개국으로는 스위스가 1위,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와

홍콩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Cont. page 5]

필리핀,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51위로 상승

[Cont. from page 4]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위권에 오른 국가는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6위)입니다.

필리핀의 순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2024년 43위에서 2025년 46위로 더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세부 항목에서는 일부 개선이 있었습니다.

‘생산성 및 효율성’은 51위에서 43위로 8계단 상승했으며, ‘경영 관행’은 47위에서 4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세부 항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노동시장’ 순위는 32위에서 37위로, ‘태도 및 가치관’은 33위에서 38위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융’ 세부 항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 필리핀의 ‘정부 효율성’ 부문 순위도 하락해 49위에서 51위로 두 계단 떨어졌습니다.

‘기업 관련 법률’ 항목은 59위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다른 부문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세 정책’은 15위에서 17위로, ‘제도적 체계’는 53위에서 54위로, ‘사회적 체계’는 55위에서 59위로 하락했습니다.

‘공공 재정’ 항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 성과’ 부문에서 필리핀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체 순위가 2024년 40위에서 2025년 33위로 상승했습니다.

이 부문의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개선된 가운데, ‘국제 투자’는 44위에서 45위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물가’ 항목은 9계단 상승해 39위를 기록하며 가장 큰 개선폭을 보였습니다.

기타 주요 지표로는, ‘국내 경제’가 27위에서 22위로, ‘국제 무역’이 58위에서 55위로, ‘고용’이 10위에서 7위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전 과제로 지적돼온 ‘인프라’ 부문도 2025년에 61위에서 60위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초 인프라’는 62위에서 60위로, ‘기술 인프라’는 55위에서 43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30920/ph-climbs-to-51st-in-global-competitiveness-report>

유니캐피탈, 2분기 경제 성장 가속화 전망

June 17, 2025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유니캐피탈 그룹에 따르면, 선거 지출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필리핀 경제는 2분기에 1분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캐피탈 증권(Usicapital Securities Inc.)의 사장이자 CEO인 벤 토마스 파냐레스(Ben Thomas Pñares)는 「더 스타(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의 5.4%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라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의 5.3%보다 약간 빨랐지만, 작년 같은 기간의 5.9%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Cont. page 6]



Photos show an aerial shot of Quezon City.

The Philippine STAR /
Michael Varcas

유니캐피탈, 2분기 경제 성장 가속화 전망

[Cont. from page 5]

1분기 성장률은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6~8% 범위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는 적어도 2분기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파나레스는 말했다.

그는 2분기 경제 성장을 전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난 5월에 실시된 선거와 관련된 지출을 꼽았다.

또한, 소비자 지출이 2분기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다는 것입니다.” 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하락하며 2019년 11월의 1.2%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공공요금 하락세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이후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1.9%로, 정부의 목표 범위인 2~4%를 약간 밑돌았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파나레스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BSP는 지난 4월 10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5.50%로 조정한 바 있다.

다음 통화정책 회의는 6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파나레스는 미국이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필리핀의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 덕분에 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생산 거점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와 대부분 국가에 대한 기본 관세율 10% 도입 이전, 필리핀 수출품에 부과된 미국의 상호 관세는 17%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6/17/2451036/unicapital-expects-faster-economic-growth-q2>

교통부, 2028년까지 공항 10곳 추가 민영화 추진

June 16, 2025 | Jon Viktor D. Cabuenas | GMA Integrated News



현 행정부는 남은 3년 임기 동안 관광지에 위치한 일부 공항을 포함해 최소 10개의 지역 공항 운영을 민간에 넘길 계획이라고 비벤시오 “빈스” 디존 교통부 장관이 월요일 밝혔다.

디존 장관에 따르면, 교통부(DOTr)는 다음의 10개 공항을 공공-민간 협력(PPP)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로일로, 다바오, 시아르가오, 라오아그, 부수앙가, 비콜, 타클로반, 바콜로드-실라이, 제너럴산토스, 푸에르토프린세사.

“저는 2028년까지 10개의 공항을 PPP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상당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통령께 과감히 약속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라고 디존 장관은 마카티시에서 열린 필리핀경제기자협회(EJAP) 인프라 포럼에서 말했다.

디존 장관에 따르면, 현재 가장 진척된 사업은 빌라 그룹이 제안서를 제출한 일로일로 공항 프로젝트이며, 현재 경제기획개발부(DepDev)의 조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일로일로 공항은 단독 프로젝트로 개발될 예정이며, 나머지 공항들은 국제금융공사(IFC)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제안에 따라 묶음으로 입찰에 부쳐질 계획이다. [Cont. page 7]

교통부, 2028년까지 공항 10곳 추가 민영화 추진

[Cont. from page 6]

“정부는 많은 지역에 최소한의 활주로나 비상, 재난 구호를 위한 비행장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은 최소한 있어야 하고, 상업적으로 타당한 공항들은 모두 PPP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디존 장관은 말했다.

현재까지 7개의 공항이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프로젝트는 2024년 9월에 New NAIA Infra Corp. (NNIC)이 운영을 인수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이다.

기타 공항으로는 아보이티즈 그룹이 운영하는 보홀-판라오 공항과 라구인딩안 공항, GMR 메가와이드 세부 공항사(GMCAC)가 운영하는 막탄-세부 공항, 루손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공항 개발(LIPAD)이 운영하는 클락 공항, 그리고 산미구엘이 운영하는 카티란 공항과 뉴 마닐라 공항이 있다.—RF,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49558/dotr-eyes-privatization-of-10-more-airports-until-2028/story/>

도소매업 부문, 2034년까지 가치 15조 페소로 3배 성장 전망

June 17, 2025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국내 도소매업 부문의 가치는 2024년 약 4.9조 페소에서 2034년에는 15.1조 페소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성장 전망은 월요일 퀘존시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민간 협력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인 「섹션 G: 일자리 청사진」에 담겼습니다.

이 같은 가치 확대와 함께 도소매업 부문의 고용 인력도 2024년 1,020만 명에서 2034년에는 1,250만 명으로 증가해 향후 10년 동안 2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소매업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올해 18.34%에서 2034년에는 19.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티나 로케(DTI)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번 청사진이 필리핀의 소상공인 기반이자 유통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사리사리(sari-sari)' 상점에 특별한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케 장관은 사리사리 상점 네트워크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소규모 소매업자들이 제품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공사(Small Business Corporation)가 운영하는 100억 페소 규모의 대출기금을 통해 금융기회를 모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청사진에 따르면, 사리사리 상점의 소매 가치도 최근 연간 평균 1.12조~1.46조 페소 수준에서 2030년에는 2.4조 페소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리사리 상점은 전체 소매 시장 활동의 15~20%를 차지하며, 비공식 부문 노동력의 8.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 인구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사진은 DTI와 필리핀 공급망관리협회(SCMAP), 필리핀 소매업협회(PRA)가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이며, 연구는 아시아태평양대학교(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가 수행했습니다.

청사진은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6대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중심 전략 시장 참여자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공공-민간 협력 확대 디지털 전환 인력 역량 강화 탄력적이고 통합된 공급망 구축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의 장기 성장을 견인할 10대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국산 제품 판매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공정 경쟁 보장 일관된 규제 환경 조성 등의 전략이 포함됩니다.

청사진은 필리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축제 기간 지출 습관을 활용해 필리핀을 아시아 지역 유통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 소매 형식의 현대화 사리사리 상점의 지역사회 기반 역할 강화 업계 자율규제 체계 강화 하이브리드 유통 모델 지원 전 산업의 디지털화 가속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wholesale-retail-trade-sector-seen-tripling-in-value-to-p15t-by-2034/>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